

막가는 학원 체벌 피멍드는 아이들

성적 하락·태도 불량 이유... 학부모와 마찰

광주지역 상당수 학원이 학생 성적 하락이나 태도 불량을 문제삼아 체벌을 일삼으면서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원에서는 학생 등록시 학부모에게 '체벌허락동의서'를 받아놓거나 체벌에 앞서 전화로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거나 허락체벌 대신 상품을 주는 등 교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학원이 체벌 '만연' = 유명학원들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돼야 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수업 중 공공연히 매를 때리는 등 체벌을 악용하고 있다. 한 수학 유명 학원의 경우 쪽지시험을 실시, 틀린 문제당 5대씩 체벌을 하고 있으며, 인근 영이 전문학원도 시험에서 틀린 문제 수에 따라 손바닥에 피멍이 들도록 가혹한 체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 북부경찰에 폭력 혐의로 불발된 학원장 윤모(48)씨는 수업 중 학생 1명이 자신에게 욕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의를 받던 학생 8명을 모두 불러 벌을 주고 매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학부모 반응 엇갈려 = 대다수 학부모는 스스로 공교육을 불신해 많은 돈을 들여 자녀를 학원에 보낸 만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영어 전문학원에 보내고 있는 정모(여·46)씨는 "애가 가끔 학원에서 쪽지시험을 잘못 봐 손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오는 날이면 '내가 정말 애한테 못할 짓 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마음에 애를 달래 다음날 다시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체벌해달라고 일부러 요청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광주시 북구 Y학원 문모(36) 원장은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체벌을 허용하면서 공부를 더욱 시켜달라고 요구한다"며 "학원 규정과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매의 규격과 횟수를 정해 그 한도 안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는 학원을 옮기거나 체벌을 가한 학원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을 유명 수학학원에 보냈던 이모(여·42)씨는 딸이 체벌을 무시하며 학원에 가기를 꺼리자 아예 학원을 옮겼다. 이씨는 "학원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서로 경쟁하는 등 좋다는 것을 알지만, 갑작적인 교육으로 딸이 수학에 흥미를 잃고 후시 다치지 않을까 우려돼 좀 더 분위기가 자유로운 학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학원들 교육지책에 부상 = 광주시 남구 J학원에서는 학생 등록시 학부모에게 '이 학원에 다니는 동안 학생에 관한 체벌 등의 전권을 선생님께 위임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체벌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자는 것이다.

동구 G학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애가 수업시간에 떠들어 매를 때려야 하는데 때려도 되냐"고 묻고 학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

광주 북구 J어학원은 숙제를 잘 해 오거나 결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50원 상당의 스티커를 쥐 일일액이 쌓이게 되면 쇼핑몰(www.lemons.co.kr)에서 학원생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학원 양모(여·26) 강사는 "매도 들어보고 벌도 쥐 봤지만 효율성은 모두 떨어졌다"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고민하다 상품을 내걸었더니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입시 보습학원이 1천584곳, 예능 871곳, 직업기술 188곳 등 총 3천221개의 학원이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8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노래방 연쇄 강도 어디서 '콧노래' 부를까 경찰 수사 담보...12만명 사진 대조

광주 노래방 연쇄강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경찰은 최면술·초상화 작성 등 온갖 기법을 동원했지만 13건의 사건이 5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지자 아예 '막고 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 인구 140여만 명 중 8.6%인 12만131명을 용의선상에 놓고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하루 1천여 명씩 사진 대조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최근 5개 구청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 '1973년 1월1일~1983년 12월31일 출생 남자'(24~34세)의 인적 사항과 화상사진을 요구했다. 구청 측은 '해당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건네도 되는지 여부에 협조 바란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구청 측이 CD와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보낸 주민은 ▲동구

2만 명 ▲서구 98명 ▲남구 83명 ▲북구 7만 명 ▲광산구 3만 명 등이다.

북부경찰의 경우 7만 명 중 얼굴이 비슷한 30명의 타액(唾液)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용의자의 마스크 등에서 나온 것과 '미일치'로 나온 상태, 전남지방경찰청은 서모(27·광주시 서구)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매일로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임선숙(여·40) 변호사는 "경찰이 노래방 사건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용의선상에 두고 사진 대조 등을 하는 것은 '과잉 수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북 23만 마리 도난 진도 양식장서



다도해의 한 양식장에서 수억원 대의 전복이 갑갑같이 사라져 해결이 수에 나섰습니다.

진도군 근내면 신기리 김모(51)씨는 1일 자신의 해상 가두리 3동 92칸(1칸=2.2×2.2m) 중 81칸에 있던 2년생 전복 23만 마리(시가 2억9천여 만원)가 없어졌다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가두리 1칸당 3천~4천여 마리의 전복을 키우면서 20여 일 간격으로 먹이인 미역을 주는데, 이날도 먹이 공급을 위해 그물을 들어올렸더니 전복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도난당한 가두리의 그물 상태가 온전하고 ▲장잡 내다 팔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전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한 칸 당 전복 채취 시간이 30분으로, 범행이 최소 10일 이상 대담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전복 양식을 잘 아는 해상 전문탈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 양식장이 하루 수백 척의 선박이 지나는데 다도해 주요 항로 인근인 점을 감안, 레이더에 기록된 선박과 목격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 (062)514-3002 ☎공방: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 (062)525-9002 ☎전주점: (063)271-5051

강풍에 애꿎은 닭 4,000마리 압사
지난달 30일 오후 7시19분께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한 양계장의 지붕 보온덮개가 추속 17.7m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갔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닭들이 비바람을 피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서로 뒤엉켜 4천 마리가 압사, 3천5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영암=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시내버스 소매치기
동부경찰, 2명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1일 광주 시내버스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변모(48)·하모(4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6일 홍모(여·60)씨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현금 250만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소매치기환 혐의이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간 큰 10대, 경찰 수감·가스총 훔쳐

○10대 차량탈이범들이 범행과 과정에서 경찰 수감과 가스총도 도난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

○경찰은 "가스총과 수갑도 훔쳤다"는 A군 등의 진술에 따라 해당 장비를 확인 중이며, 도난 경위와 분실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개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불법 중 휴대간 것 같다"며 "퇴근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었지만, 언제 장비가 필요할지 모르니 차에 보관하던 중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

/*연합뉴스

명품신도시의 종합특권을 누리는 3,813 회대단지!

▶ 품격정·호수공원 정외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정 처장과 갈등 없었다"

경찰, 도민체전 살인극 정건철씨 구속

전남도민체전 기간 중 벌어진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강진경찰은 1일 전남도체육회 정건철(61) 사무처장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처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45분께 강진 H식당에서 흥기를 휘둘러 전남도 씨름협회 신명석(52) 전부위원을 살해하고, 백낙천(58) 회장에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범행 경황·도피과정·

공모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체육회 박모(55) 상임부회장은 정 처장이 경찰에서 자신과 불화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임명 후 8개월 동안 얼굴 한번 붉힌 적이 없고 연쟁을 해 본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갈등의 직접적 이유로 알려진 예산·업무·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있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

왔고 업무추진비 1천200만원도 백 원짜리 하나 개인적으로 써 분적 없다"면서 "정 처장이 필요없는 출장을 자주 가는 바람에 체육회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부회장은 거취와 관련 "임명권자인 전남도지사께서 할 문제"라며 "도의회 의장을 지낸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지금 물러난다면 '갈등'을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오해가 풀린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현주·김여기자 ahj@kwangju.co.kr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함께 기원합니다.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미술, 작문, 논술부신칭

- 예선 공모기간 : 5월 1일(화)~19일(토)
- 현장 예선 실기대회 신청(미술,작문부) : 5월 9일(수)까지
- 현장 예선 실기대회(예정) : 5월 11일(금), 금호패밀리랜드
- *논술부문은 현장 예선 실기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한글(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우편·방문 접수가능

미술·작문·논술대회

- ▶ 예선/결선대회로 실시
-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 ▶ 논술부문 초등부 1·2학년 제외

「새싹그리기 축제」공모

- ▶ 공모기간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외 입선제 도입

장 학 금

- *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각 100만원
- * 합창·합주제 대상 각 1팀 50만원
- * 개인·단체 최고상
 - 초등 20만원 / 중등 30만원
 - 고등 50만원

대회기간

- 2007년 4월 23일(월) ~ 6월 30일(토)
- 장소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 광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행사종목

- 음악부문: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악, 관악, 현악
- 무용부문: 현대무용, 발레,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 ※ 한국전통무용 초등부 저학년(1·2학년)독무 제외
- 국악부문: 기악, 성악, 가야금(병창·산조), 타악
- 작문부문: 시(동시), 산문
- 미술부문: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한국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 논술부문: 총괄논술·초등부 저학년(1·2학년) 제외
- 합창제, 합주제

시 상

- 우수학교시상: 종합최고상, 종합우수상
- 단 체: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개 인: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우수지도교시상

참고사항

- 참가신청: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062-220-0541, 222-8111)
- 경연일정: 세부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 관련자료: 인터넷 한글주소(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삼성생명 한국토지공사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충정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다채 문화재단